

‘먼나라 이웃나라’ 33년 만에 완간

이원복 교수, 이달말 최종편 ‘에스파냐’ 펴내



역사 만화의 ‘최장수’ 베스트셀러로 통하는 ‘먼나라 이웃나라’가 33년 만에 완간된다.

13일 김영사에 따르면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는 이달 말 ‘먼나라 이웃나라’ 15번째 책이자 최종편으로 ‘에스파냐’ 편을 펴내고 33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먼나라 이웃나라’는 1981년 신문 만화로 연재를 시작해 1987년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편 등이 단행본으로 나오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역사를 두루 다루며 한국 역사 만화 사상 최장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

김영사 관계자는 “저자는 스페인의 국난 극복 과정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보고 ‘먼나라 이웃나라’ 최종편으로 오래전부터 에스파냐 편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구상과 자료 조사 기간까지 합쳐 35년에 걸친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각장애(가운데) 친구를 도우며 함께 수업을 듣는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학생들. 왼쪽부터 이진희·조아라·서애리양.

“장애 친구 돕다보니 공부도 잘돼요”

청각장애 친구 수업 도우미 전남대 이진희·서애리 양

“귀가 불편한 아라가 언제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수업을 더 집중하게 듣게 됐어요. 아라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3명 모두 A플러스 학점을 받을 거 같아요.”

싱그러운 봄 내음 가득한 대학 캠퍼스에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조아라(19), 서애리(19), 이진희(19)양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 낭만을 느끼고 있는 여대생들이다. 싱그러운 미소를 가진 이들은 옛된 외모에 한창 연애에 관심이 많은 여느 대학생들과 다름이 없었지만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진 친구들이었다. 졸업한 고등학교도 살고 있는 집도 서로 다른 세 사람이 개강까지 일주일 만에 ‘절친’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서애리, 이진희 양은 청각 장애를 가진 조아라 양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도와주고 있었다.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세 사람은 수업 시간에 필기할 노트를 서로 보여주면서, 또 교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친구에게 설명해 주면서 친해지게 됐

다고 한다.

“귀가 불편한 친구를 왜 돕게 됐나구요? 누구나 친구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떤 계기로 친구를 돕게 됐느냐고 묻는 기자에 대해 서애리 양은 당연한 일을 한 것 뿐이라며 그 이유를 묻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조아라 양은 청각장애 2급으로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나 작은 소리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빨리 설명할 때는 듣기가 힘들다고 했다. 3살 때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열병을 앓고 청력이 약해진 후 의사소통에 가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완전한 안 들리는 것은 아닌데 교수님들이 말을 빨리 하시거나 작은 소리로 설명 하시면 듣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애리나 진희가 도와주는 게 정말 큰 힘이 되죠.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대학교 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조 양은 친구들에게 본인의 장애를 이야

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걱정돼 먼저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의 장애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다. 두 친구도 처음에는 아라 양의 장애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애리와 진희가 먼저 저를 돕겠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작은 도움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거듭 고마워하는 친구에게 서애리 양은 오히려 자신이 더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친구를 돕는 걸로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장학금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런 기회를 준 아라에게 더 고마워요. 여섯 과목 수업을 함께 듣는데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듣게 돼요. 그래서 저희 모두 성적이 잘 나올 거 같아요.”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해서 한창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있는 그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자 서로의 얼굴을 보며 씩씩 웃는다. “앞으로요? 당분간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느라 놀지 못한 거 마음껏 놀고 싶어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신대, 1200여 동문 참여 ‘총동문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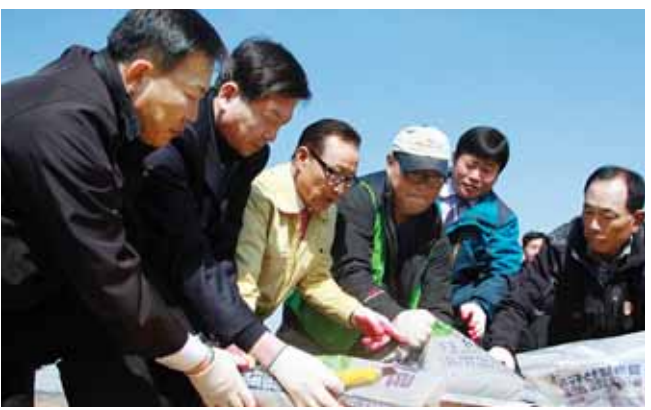
개교 59주년을 맞는 광신대학교가 총동문회(총동문회장 전주남 목사)의 주최로 최근 홀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제1회 광신총동문회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학부, 신대원, 일반대학원 등 졸업생과 가족 등 1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1부 예배는 전주남 총동문회장의 사회와 총동문회 자문위원장 안기영목사(광주지산교회 담임)의 설교로 진행됐다. 예배 후 축하 및 인사, 경품 추첨 및 광고순서로 진행됐다.

총동문회장 전주남목사(새서울교회 담임)는 “이번 총동문의 날 행사가 광신대를 졸업해 다양한 현장에서 사역하는 동문 선배간의 교제의 장이 되기를 원하며, 정통보수 신학의 요람인 광신대 동문으로서 자긍심과 애교심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영암농협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시연회’



영암농협(조합장 문병도)이 지난 11일 김일태 영암군수와 최익주 농협영암군지부장 등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읍 승평리 앞 들녘에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시연회를 가졌다.

(영암농협 제공)

“후배들아, 책 속에 길이 있다”

성남 새마을회장 염동준씨 모교 보성 문덕초에 도서 4천권

최근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회가 보성군 문덕초교와 자매결연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도서 4000여 권을 문덕초교에 전달했다.

성남시새마을회 회장인 염동준씨가 모교인 문덕초교가 지난해 겨울에 도서실을 신축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서복지 교양도서 기증 운동을 벌여 마련한 책이다.

염 회장은 이날 “후배들이 많은 책을 읽어 꿈의 날개를 달고 세계로 비상하기를 바란다”며 “해마다 후배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김상호 문덕면장, 최태성 면민회장, 염남호 학교운영위원장, 염승연 청년회장과 지역 청년들도 참석했다.

학생 대표 이민기(13)군은 “책이 많이 생



겨서 기쁘고, 아침 독서 시간 등 틈나는 대로 책을 읽어서 서재필 박사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문덕초교 김용국 교장은 “책·예술 활동(Book Art), 독서동아리 활동, 별빛 독서교실 등을 실시하고 지역민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군 수협 차종훈 조합장 공로상



고흥군 수협 차종훈 조합장이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2수협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공제보험 사업에 기여한 업적으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청소년활동진흥원 자원봉사단 모집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오는 29일까지 16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2013 대한민국청소년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원봉사단은 오는 8월 7~16일 라오스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5개국 20개 지역에 9박10일 간 파견돼 청소년시설 개·보수활동, 문화·체육교류 활동 등을 하게 된다. 만 15~24세 청소년 24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거주지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정선호(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개원준비단장·前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임현숙씨 장남 으뜸(한화에너지 근무) 유종술(전남 여수 성산초등학교 교사)·최형담씨 장녀 유리양(전남 여수시청 근무)=16일(토) 낮 12시 S타워컨벤션센터(서구 치평동) 3층 메리골드홀.

▲문복순씨 장남 이지민(삼성전자)군 나침수(전남도 의사회장·순천 나산부인회위원장)·강정선씨 장녀 성진양=16일(토) 오후 2시 아름다운컨벤션 1층 티파니홀.

▲서생현(조선대 평생교육원 교감 사회 수석부회장)·최경희씨 장남 준오군 박승근·조연자씨 장녀 영신양=16일(토) 오전 11시 40분 수아비스웨딩컨벤션 2층 크리스탈홀.

▲故 이충노·최영순씨 장남 종진군 정진백(행동하는 양심 광주·전남협회의회장)·양민오씨 딸 유선양=16일(토) 오후 1시 라마다프라자광주호텔

4층 그랜드볼룸.

▲정종영씨 장남 천주군 한용순(순천 법부사)씨 딸 이음양=16일(토) 오후 2시 서울 메도리스웨딩홀 4층.

▲정희복·정음희씨 장남 일원군 이승욱(전남도청 관광문화국장)·김운옥(전남도청 세정과 세외수입담당)씨 장녀 가영양=17일(일) 낮 12시 서울 서초로알프라스 1층 다이아몬드.

▲양종열·배정자씨 이남 시연(화순소방서)군 이숙범·김미순씨 삼녀 재나양=16일(토) 오전 11시 예술의전당 아트홀 1층.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15회 동창회(회장 정본진) 월례회=15일(금) 오후 6시 30분 롯데백화점 9층 천안문 062-221-1901.

▲북성중 제16회 동창회(회장 최원섭) 월례회=16일(토) 오후 7시 수리식당 062-223-0028.

▲정충장평초등학교 총동문회 제2

회 정기총회=16일(토) 오전 11시 장충장평초등학교 교내 장광관 010-9212-1522.

증친회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수분원 정기총회=15일(금) 오전 11시 진남체육관 실내경기장 010-7578-9889(분원장이금수).

▲전주강씨 광주전남 총회(회장 강원구) 정기총회=16일(토) 오전 10시 30분 광주교류 유희회관 대강당 062-228-3368.

▲홍양이씨 매곡공파 증친회(회장 이형선) 정기총회=16일(토) 오전 11시 남광주농협 3층 회의실(남구 주월동) 010-6610-3685.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회 3월 월례회의(회장 이의준)=19일(화) 오후 7시 062-225-5636, 5631.

▲전주리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회 3월 월례회의(회장

이보희)=22일(금) 오전 11시 062-225-5636, 5631.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 알코올상담=알코올,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 제공 교육을 실시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062-526-3370.

▲말레이시아 REAL대학 초창 조 기유학 설명회=29일(금) 오전 11시 무등빌딩 5층 유학허브 무료 SLEP TEST 응시 선착순 접수 062-263-3434.

▲오치중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형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모집

▲문화 축구단회원은 북구 문화초등학교 매일 오전 6시 20분 010-8542-3366(이성희).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강사 양성 과정=교육기간은 14일·15일·19일·20일·22일 오후 1시30분~5시, 모집 대상은 청소년자원봉사교육 강사 활동 가능한 성인, 모집기간 8일(금)(총 5명) 교육비 2만원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여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 참가자=자원봉사 사설프로그램 참가자. 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사

설프로그램 학습 및 활동, 초등학교생, 청소년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부음

▲염용출씨 별세 정호·정남·현주·현정씨 부친상=발인 1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윤귀례씨 별세 김기주·김용·김호·명숙씨 모친상=1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국웅(남무등·우리로광통신㈜ 대표이사)씨 별세 인(em)·준(미래에셋증권)·명희·선씨 부친상 서순석(한국투자증권)·조철호(sk하이닉스 반도체)씨 빙부상=발인 1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062-220-3352.

故 김국웅 회장님 영전에 부쳐

— 최희 (전남대 명예교수)

광주의 큰 별이 졌습니다. 사회가 어두울 때 가야할 방향을 보여주던 밝은 별 하나가 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작별을 고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커다란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들니다.

김국웅 회장님! 회장님은 저에게 친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YMCA활동을 함께 해 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매달 Y의 모임에서 만나 접하던 부드러운 말씨와 미소가 여전히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제 수첩에는 다음달 15일에 만날 약속이 적혀 있는데 이제는 볼 수 없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1980년 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무등’을 일으켜 세우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도 해직교수들을 품양함으로써 도우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회장님은 언제나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찾아 아무도 모르게 도움을 주시곤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나누고 베푸는 정신이 회장님의 회사에도 그대로 반영돼 ‘주식회사 무등’과 ‘우리로 광통신’은 모든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들의 연례적 해외순회,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개설은 회장님이 펼친 인간중심의 경영철학을 잘 말해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서 지역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저와 함께 영호남민간인협의회와 소통과 교류를 위한 포럼을 만들어 지역교류와 사회통합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만드신 회사들과 오랫동안 몸담았던 YMCA, 그리고 관심과 애정을 쏟은 대학, 수많은 사회단체가 회장님이 놓고 가신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부족한 저희가 회장님의 착하고 신한 뜻을 이어받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형님, 생의 한가운데서 만나 광주에서 함께한 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같이 한 시간들, 행복했습니다.

강운태 광주시장, 독일서 영결사 보내와

강운태 광주시장이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방문 중인 독일에서 김국웅 우리로광통신 회장의 비보를 접하고 비통한 심정을 담은 영결사를 13일 고인의 영전에 바쳤다.

강 시장은 영결사에서 “회장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열정을 쏟았던 광산업이 이제 막 싹이 트고 꽃을 피울 때가 됐는데 그 추억이 가시니 그저 황망할 뿐”이라며 “생로병사가 인간필귀의 도라 하지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라며 애절한 심경을 표했다. 강 시장은 이어 “회장님께서 못다 하신 꿈은 이제 남아있는 저희가 이뤄내겠습니다. 광산업의 꽃을 활짝 피워 세계 속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빛고를,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며 각별한 추모의 뜻을 전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에쿠우스’ 연극배우 강태기씨 별세



연극 에쿠우스로 이름을 날린 텔란트 겸 연극배우 강태기 씨가 1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63세.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당시 인천시 서구 불로동 한 아파트 작은 방 침대 위에 옆으로 누운 상태였으며 주변에서 소수병이 발견됐다. 유족들은 강씨가 지난해 사기를 당한 뒤 그 총액으로 약 1년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내며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謹 尙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故 조세현 (남/70세) 子/子: 조창기/김용자, 민기/김한자, 중기/박춘순 女/婦: 조재숙/최용주 •호실: 201호 •장지: 화순 이왕 선영	故 최성배 (남/71세) 子/子: 최지성/조희운 女/婦: 최은숙/박노식, 인영/윤준현, 찬숙/유형식 •호실: 301호 •장지: 담양 천주교 묘역
故 이부진 (여/93세) 子/子: 김산주/계미숙, 용운/서영선, 용민 女/婦: 오광옥/김지용, 지향	故 소복래 (여/57세) 子/子: 임항규/류미 婦: 임연도 •호실: 402호 •장지: 신안 하의도 선영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